

‘태풍 링링 강타’ 광주·전남 피해 속출

중형급 태풍 링링이 광주와 전남지역을 강타하면서 가로수가 뽑히고,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철저한 사전 대비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8일 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링링 피해를 잠정 집계한 결과, 인명 피해는 없지만 3천849ha 벼가 넘어지는 등 농작물 도복 피해 면적이 4천13ha에 달했다.

특히 태풍과 근접했던 서해 도서 지역에는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50m 인파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가 집중됐다. 신안 흑산도의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54.4m 역대 4위를 기록했다.

다만 태풍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 중국 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내륙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또 태풍이 한반도 서해 진입 이후 속도가 빨라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은 비 피해가 크지 않았다.

행정당국의 신속한 대처도 피해를 줄이는데 한몫 했다. 전남도는 태풍 접근 예상 시점보다 사흘 앞선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태풍 대비에 나섰다. 전남도는 현장상황관리관을 22개 전 시군에 각각 1명씩 파견했다.

지역별 농작물 도복 피해는 해남 1천ha, 영암 680ha, 강진 407ha, 나주 350ha, 곡성 300ha, 보성 228ha, 구례 155ha 등이다. 낙과 피해 면적도 1천160ha(배 1천79ha, 사과 62ha, 감 15ha, 무화과 3ha, 자두 1ha)에 달했다.

지역별 낙과 피해는 나주 465ha, 영암 320ha, 순천 98ha, 곡성 73ha, 보성 56ha, 신안 55ha, 구례 24ha 등이다.



지난 8일 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링링 피해를 잠정 집계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지만 3천849ha 벼가 넘어지는 등 농작물 도복 피해 면적이 4천13ha에 달했다. 사진은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가로수 전복 복구장면. /순천시 제공

수확기 벼 도복 3천800ha·낙과 1천160ha
가로수 뽑히고 방파제·가드레일 파손·유실
역대급 불구 철저 대비로 피해 규모 최소화

비닐하우스(5ha)와 인삼 차광막 시설(2ha) 등 농업시설물 7ha가 파손되고 신안 태양광 패널과 순천 농협 창고 지붕이 각각 파손됐다. 전복(4 어가), 우럭(1 어가) 등 일부 양식시설이 파손됐고, 어선 3척이 전파됐다. 염전 시설(18 어가)들의 지붕파손도 잇따랐다.

도로와 방파제 등 공공시설물 피해도

발생했다. 진도군과 광양군 등 16개 시군, 1만5천886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현재 복구가 완료됐다. 광주지역은 인명피해 없이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등 경미한 피해 40건이 발생했다. 광주지역은 인명피해 없이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등 경미한 피해 40건이 발생했다. 광주지역은 인명피해 없이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등 경미한 피해 40건이 발생했다.

전남도, 추석 대이동 기간 가축 질병 차단 총력 시·군별 행정지원담당관 지정 방역활동 현장 점검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10일부터 17일까지 과장급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군 행정지원담당관 22명이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에 대비한 축산농가 일제 소독·정소 및 홍보캠페인, 방역현장 점검활동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청 과장 22명을 출신 연고지 위주로 '행정지원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난 등 현안에 따라 담당 시군에 출장해 현장행정 지원에 나서게 된다.

특히 시·군을 방문해 단체장 등 간부들과 면담을 해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활동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일제 정소·소독 추진 실태

및 현수막 설치, 홍보전단 배포, 주요 교통시설 간부진 방문 여부 등 시군별 방역홍보상황 점검 활동을 펼친다.

축산농가 등 현장 점검의 경우 농가 입구 소독시설 설치 현황,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시군 주요 교통시설에서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홍보에도 나선다.

이윤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 명절에는 귀성객 등 이동 증가로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농장으로 유입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기관, 관계기관, 농가 등이 협력해 차단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완도수목원서 한가위 힐링하세요”

산·바다 어우러진 난대숲
추석 연휴기간 무료 개방

완도수목원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완도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무료 개방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전남만이 가진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즐기며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완도수목원은 2천33ha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수목원이다. 동백, 황칠, 불가시나무 등 770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산림전시관, 산림박물관을 제외한 전문소원, 아열대 온실, 난대림 탐방로 등을 무료 개방한다.

이 가운데 아열대온실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식물로서 공룡이 먹던 나무로 알려진 '올레미 소나무'와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는 극락조화, 호주매화, 대왕야자 등 500여 종의 열대·아열대 식물을 볼 수 있어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밖에도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 암석원을 비롯한 전문소원과 숲과 바



완도수목원 전경. /완도군 제공

다가 어우러진 풍광을 배경으로 한 늘 푸른 난대림 숲길은 오직 완도수목원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것으로 온 가족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손꼽힌다.

정문조 완도수목원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최대 난대 숲인 완도수목원에서 가족과 화합을 다지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수목원은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가을 숲속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산림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이벤트 및 전시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가을철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김영록 전남지사 유럽 4개국 순방

조선업체 선박 수주 지원 등 교류협력활동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열흘동안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8일 출국한 김 지사는 이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선박 수주 지원과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마리아노와 마켓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홍보 등을 위해 그리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4개국을 방문한다. 그동안 김 지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전

남의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하는 등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번 가운데 전남의 전통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조선산업과, 소목도 전사의 노벨상 후보 추천 등 긴요한 유럽 수주 업무가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이에 따라 현안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연휴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먼저 대한조선 관계자와 그리스를 방문해 게오르기오스 빠풀리스 아티키주지사를 만나 조선산업과 섬 관광개발 등에 대해 회담을 갖고, 대한조선과 그리스 대형 선사의 선박수주 계약을 지원한다.

러시아에서는 한전 관계자와 모스크바의 스킨코보 혁신센터를 방문해 스킨텍 관계자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대해 회담한다. 전라남도-한전-스킬텍 상호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 후, 스페

라나 비탈레브나 추세바 러시아 전략기획청장을 만나 향후 러시아와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독일에서는 뮌헨의 스마터투게더 등 e-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블루 이코노미'의 전략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트랜스포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 지사는 이번 유럽순방에 관련 분야별 관계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평소 도정철학인 '협정 제일주의'와 '소통·협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조선산업 활성화, 한전공대 비전 제시, 블루 이코노미 추진 등 도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2019. 9. 10 화 ▶ 9. 15 일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는 대한씨름협회와 영암군이 함께합니다.

의고장 씨름 영암

무료 입장, 무료입장 무료관람, 무료입장권은 오전 10시부터 입구에서 배부릅니다.

축하 공연, 인기 가수 축하공연, 메인 메인 인기가수의 신나는 축하공연이 펼쳐집니다.

경품 추첨, 매일매일 경품추첨, 매일 매일 무제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나눠드립니다.

일 자	방송	시 간	경 기 내 용
【제1일】 9/10<화>			매화·국화·무궁화(여자부) 예선전
【제2일】 9/11<수>	KBSN Sports	오 전	태백장사(80kg이하) 예선전
		14:00	매화·국화·무궁화(여자부) 장사결정전
【제3일】 9/12<목>	KBS1 한국방송	오 전	금강장사(90kg이하) 예선전
		15:10	태백장사(80kg이하) 결정전
【제4일】 9/13<금> (추석)	KBS1 한국방송	오 전	한라장사(105kg이하) 예선전
		15:10	금강장사(90kg이하) 결정전 (개 회 식)
【제5일】 9/14<토>	KBS1 한국방송	오 전	백두장사(140kg이하) 예선전
		15:10	한라장사(105kg이하) 결정전
【제6일】 9/15<일>	KBS1 한국방송	15:10	백두장사(140kg이하) 결정전

※ 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선전 미정)